

---

---

# 임시수도기

## 부산경찰 활동의 분석과 평가

---

---

최종술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目 次

I. 서 론	IV. 임시수도기 부산 경찰활동의 분석과 평가
1. 연구의 목적	1. 경무분야      2. 방법분야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수사·형사분야    4. 경비분야
II. 부산경찰의 역사 개관	5. 정보분야      6. 보안분야
1. 경무부 시대의 부산경찰	V. 결 론
2.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경찰활동	참고문헌
3. 한국전쟁과 부산경찰	국문초록
III. 임시수도기(1950 ~ 1953)부산 경찰체제	Abstract
1. 1950년~1953년까지 부산의 상황	
2. 부산경찰의 조직구조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1945년 10월21일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우리경찰은 경무부 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경찰청시대로 발전해 왔다.

돌이켜 보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10월 21일에는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각도에는 경찰부를 창설하게 된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9월 3일에는 국립경찰 지휘권을 대한민국정부가 인수한다. 1948년 11월 4일에는 내무

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었고, 각 시, 도에는 경찰국이 설치된다. 그후 계속 치안국시대가 이어지다가, 1974년 12월 24일에는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고, 1991년 8월 1일에는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경찰국을 또한 지방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부산경찰의 역사 또한 국립경찰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되어, 1946년 부산경찰서가 제15구경찰서(군정실시)로 개칭되면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7관구 경찰청이 경상남도 경찰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에는 경상남도 경찰국으로부터 부산시 경찰국으로 분리 신설되었다. 이후 변화를 거듭하면서 1991년 8월 1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이 개칭되었고, 1995년에는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우리 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해 본다. 즉, 중앙의 국가경찰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경찰로서 부산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국가경찰체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해 보는 바, 그 시점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부산지역 경찰활동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의 체제와 활동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부산 임시수도시절(1950.08.18 ~ 1953.08.15) 부산경찰 체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바, 먼저, 부산경찰

의 역사를 광복이후 미군정시대 국립경찰의 창설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대략적으로 개괄해 본다. 경무부 시대의 부산경찰,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경찰활동,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부산지역을 관할한 경찰기관은 미 군정시기에는 제15구 경찰서, 1948년에는 경상남도 경찰국 산하의 부산경찰서 등이 있었고, 1963년 부산직할시 경찰국, 1991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개칭하여 오늘날의 부산지방경찰청 시대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둘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부산 임시수도기의 경찰체제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그 당시 부산의 상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부산경찰체제를 경찰 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전반적인 경찰체제의 형태를 조망해 본다.

셋째, 임시수도기 부산 경찰활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즉, 경찰활동을 경무, 방범(생활안전), 수사·형사, 경비, 정보, 보안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경찰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당시 부산의 시사(市史)자료에 기초하여 논의해 본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대한 조사이다. 한국경찰사와 관련되는 이론서, 논문, 각종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활용한다. 특히, 부산시사, 부산경찰사 등과 관련된 문헌 뿐만 아니라, 한국경찰사, 한국사, 행정학 등 문헌을 총망라하여 검토한다.

둘째, 문서, 회의자료, 브리핑자료, 동영상, 인터넷 등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다. 먼저 문서자료는 경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문서자료를 활용한다. 회의자료는 경찰의 역사에 관한 기관내부

의 자료, 내부보고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여 활용한다. 인터넷 자료는 각 기관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찰 관련자료나 문헌들이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의미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론<sup>1)</sup>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의 방법이 된다. 먼저, 얻어진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해석을 어떻게 구축하고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수집된 질적 자료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작업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와 종합에서부터 일반화의 여부를 가늠하는 작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자료의 분류, 설명의 구축을 포함하는 모든 분석 작업의 수행은 전략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넷째, 질적 연구로서 내용분석(Content) 또한 중요한 연구의 방법이 된다. 내용분석은 말 그대로 관련 논문, 문서나 각종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사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기록물 등의 문서나 시각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치안국의 한국경찰사 I (1972), 한국경찰사 II (1973) 그리고 치안본부의 한국경찰사 III (1985)이다. 또 이 시기에는 경찰학이나 경찰행정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경찰사가 논의되어 왔다. 예컨대 경찰학원론

---

1) Jennifer Mason,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 Sage Publication.

부분에서 대략 2~3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국경찰사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들로서, 먼저, 경찰청의 경찰50년사(1995), 한국경찰사Ⅳ(1994), 김형중의 한국고대경찰사(1991)와 한국중세경찰사(1998), 허남오의 한국경찰제도사(1998), 경찰대학의 한국경찰사(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물들은 한국경찰사를 경찰학 또는 경찰행정학 분야의 각론으로서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경찰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충남경찰국의 충남경찰사(1986) 제주경찰국의 제주경찰사(1990), 전남지방경찰청의 전남경찰사(1992), 등이 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지방경찰청으로 개칭되면서 서서히 지방경찰의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부산경찰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행정사적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고, 행정사의 한 분야로서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부산경찰의 역사를 개관해 보고, 임시수도기 부산경찰의 역사적 사건과 주요활동을 조명해 보고 평가하는 것은 부산지역 경찰사 연구로서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Ⅱ . 부산경찰의 역사 고찰

### 1. 경무부 시대의 부산경찰

#### 1) 광복직후 국내 치안상황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사회는 정치테러의 속출, 좌익계열의 준동 등으로 심

한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뚜렷한 대책이나 조직적인 기구가 없는 가운데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일본경찰의 부정적인 면을 익히 알면서도 사회혼란을 틈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당분간 기존의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들을 치안유지에 활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우리 경찰은 일제 경찰의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한편 공식적인 치안기구는 아니었지만,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치안대, 보안대, 학생대, 청년대, 경비대, 자위단, 조선학도단 등의 각종 자치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활동하였다. 당시 이들 자치대들은 비록 난립된 양상을 보였으나, 미군이 국내에 진주한 1945년 9월 9일까지 혼란스런 국내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면이 적지 않았다<sup>2)</sup>.

광복 2일째를 맞이하는 1945년 8월 16일 오후 1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은 휘문중등학교 교정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토오와의 회담경위보고 연설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즉석에서 승낙을 받았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요구사항인 ‘치안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치안유지에 있어서 일단계의 안전조치였으며, 아울러 이날 건국준비위원회는 혼란에 빠진 국내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한국인 경찰관이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 보안대’를 창설하고 곧바로 활동을 개시하였다<sup>3)</sup>.

또한 그 무렵 각지에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자치대 조직에 관한 담화 및 권고지령’에 따라 지역별, 지역별 자치대가 편성되어 자치적으로 지역 치안을 맡아 나르고 있었다.

2) 경찰청, 1996, 『경찰 50년사』, 경찰청, 20쪽.

3) 부산지방경찰청, 2000, 『부산경찰사』, 부산지방경찰청, 35쪽.

## 2) 부산지역의 치안활동

광복 직후, 부산지역의 치안활동은 애국애족의 충정에서 우러난 치안대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었다. 부산의 치안대는 먼저 여러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 청년들이 자체 경비를 위해 나선 것이 그 발단이 되어 그 후 작은 규모의 치안대들이 생겨났다.

당시 부산 치안대는 서면에 있는 제일기계공장에 본부를 두고, 해방되던 그날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에는 그때까지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간되어 오던 부산일보를 접수하고, 신문편집은 물론 검열·발행 등의 업무 일체를 주관하였으며, 부산방송국도 접수하여 우리말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지역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단위의 치안대를 조직하여 해방 후의 치안유지 활동에 주력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정세로는 보다 강력한 규모의 힘을 갖춘 치안대의 출현이 요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8월 17일 부산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건국 준비위원회 부산 지부는 1945년 8월 18일 보다 강력한 조직체로서의 치안대를 새로 조직하였고, 8월 21일에는 이를 통할하는 50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치안사령부를 결성, 발족하였다<sup>4)</sup>.

패망 직후 일본은 그때까지 한국 내에 남아있던 일본 패전군

---

4) 당시 부산치안사령부의 구성을 보면, 부산치안사령부 총사령관에는 좌익계열의 강대흥이, 부사령관에는 후일 미군정 시절 경남도경의 초대 보안과장으로 보임된 최갑관이 임명되었고, 그 본부는 초량상업학교에 설치되었다. 이에 참가한 대원들은 주로 부산상업고교, 동래고교, 그리고 부산2중(현 경남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었으며, 그밖에 각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부산지방경찰청, 『앞의 책』, 37 쪽 참조

들을 대거 무장경찰관으로 개편하여 각 경찰서에 수백 명씩 배치시켰고, 당시 일본 경찰들은 압수품을 횡령 매각하는 등 최후의 발악적인 횡포를 일삼는 상황이었다<sup>5)</sup>. 당시 부산의 치안대는 무장을 한 채 그때까지도 시민을 위협하며 횡포를 부리는 일본군과 일본경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주고, 나아가 시민들이 행정·사업·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몽하였다. 또한 물자 범람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막기 위하여 상인이나 시민들의 매점·매석행위를 계몽·단속하는 등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하였다<sup>6)</sup>.

부산 경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동래경찰서 온천파출소를 신설하였고, 아울러 부산경찰서의 본정파출소를 동광동파출소로, 록정경찰관주재소를 완월파출소로, 부민정파출소를 부민동파출소로, 남부민정파출소를 남부민파출소로, 가야경찰관주재소를 가야지서로, 다대포출장소를 다대초지서로, 수상경찰서의 영도주재소를 영도파출소로, 목도경찰관파출소를 영도경찰관파출소로, 수파나경찰관파출소를 대풍포경찰관파출소로 각 개칭하였다.

이어서 1945년 9월 23일 부산경찰서 역전파출소를 역전경찰관파출소로, 같은해 10월 11일에는 동래경찰서 해운대경찰관주재소를 해운대지서로 각 개칭하였다.

해방직후 그와 같이 경찰관서의 명칭을 대규모적으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치안여건에 맞추어 기존의 기구를 개편, 조정함과 아울러 한반도 강점후 일제에 의하여 심어진 일본식 명칭(예, 정(町))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경찰조직내 일본문화의 잔재를 청산

5)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편, 1972, 『한국경찰사 I』, 내부부치안국, 924쪽; 경찰청, 1996, 『앞의 책』, 22쪽.

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편, 1992, 『시사자료』, 부산직할시, 1119쪽.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 3) 국립경찰 창설 후 부산경찰의 변화

1945. 10. 21. 국립경찰이 창설됨에 따라 초대 경상남도 경찰 부장으로 김국태 경무관이 취임하였고, 600여명의 한국인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경찰부는 일제 경찰로부터 업무 일체를 인수하고 사회의 치안질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당시 경상남도 경찰부에 소속되어 있던 부산 경찰은 일제 치하에서 설립된 부산경찰서, 동래경찰서, 수상경찰서, 북부산경찰서 등 4개 경찰서와 1939년에 설치된 부산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립경찰 창설 이후의 부산 경찰의 조직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국립경찰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 북부산경찰서에 서면지서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0월 25일 부산경찰서 구덕파출소를 서대파출소로 개칭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일에는 동래경찰서 월내출장소와 거제지서를 신설하였다.

다음해인 1946년 3월 30일에는 동래경찰서 구포주재소를 구포지서로 개칭하였고, 같은 해 5월 15일 동래경찰서 수영지서를 신설하였다.

한편 해방후의 갑작스런 수송상황의 변화와 양적 증가로 철도 공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1946년 3월 5일 운수부에서 운용해 오던 운수경찰청을 경무부로 편입하여 철도관구경찰청이 창설되었다. 경부철도의 종착지로서 철도 행정의 요충지인 부산에도 '제16구철도경찰서'라는 명칭의 철도경찰서가 설치되어 철도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1946년 4월 11일 미군정의 경찰조직 개편에 의한 관구경

찰청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산 경찰이 속해 있던 경상남도 경찰부는 대구에 본부를 둔 제3경무총감부 산하 ‘제7관구경찰청’으로 개칭되었고, 이어서 같은해 5월 8일에는 부산경찰서는 제15구경찰서, 북부산경찰서는 제16구경찰서, 수상경찰서는 제17구경찰서, 동래 경찰서는 제18구경찰서로 각 개칭되게 되었다.

1946년 6월 수상경찰서 대풍포경찰관파출소가 대평동경찰관파출소로 개칭되었고, 같은해 6월 28일 영도구 전 일대가 수상경찰서의 관할로 이양되었으며, 같은해 7월 20일 수상경찰서 청학파출소가 신설되었으며, 같은해 8월 14일에는 부산경찰서 구포·사상지서가 동래경찰서 관할로 편입되었다.

1947년 7월 1일에는 대구, 인천 등과 함께 부산에도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어 광복후 과도적인 사회의 혼란 속에서 부녀자나 청소년들의 패륜 및 범죄를 지도, 계몽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7)</sup>.

또한 1947년 9월 동래경찰서 기장지서 관내에 송정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48년 7월 27일 동래경찰서 대변·송정출장소를 장안지서로 편입하였으며, 1948년 8월 30일 동래경찰서의 구포·사상지서를 북부산경찰서의 관할로 이전하고, 부산경찰서 화정파출소를 창선동파출소로, 영주동수목보호경찰관주재소를 산리파출소로 각 개칭하게 되었다.

한편 1948년 5월 5일 경찰관서 등급제가 실시되어 전국의 경찰관서가 1급지 및 2급지 경찰서로 분류됨에 따라 당시 부산 지역의 4개 경찰서(부산경찰서, 동래경찰서, 수상경찰서, 북부산경찰서)는 모두 1급지경찰서로 선정, 분류되었다.

7) 그러나 그 후 여자경찰서는 일반 경찰서와 경찰행정상의 토지관할이 중복되고 사무관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전쟁 직후부터 폐지가 구상되어 1957. 7. 26.자로 결국 폐지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 책』, 46쪽; 경찰청, 2000, 『앞의 책』, 168쪽.

## 2.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경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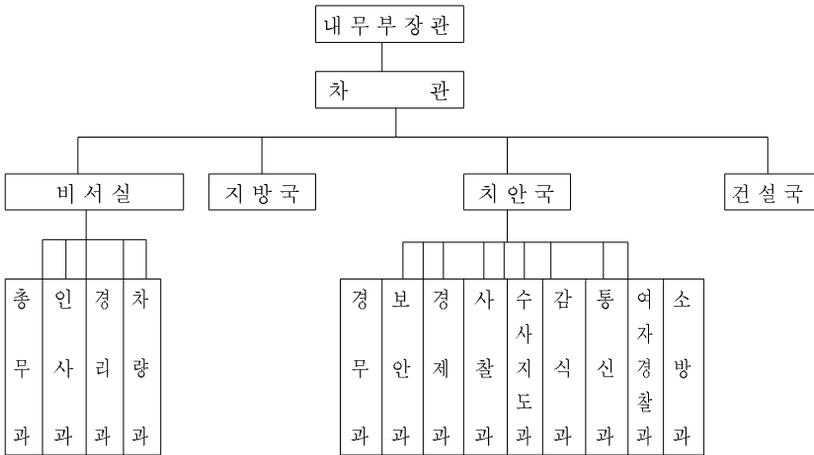
### 1)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전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새로운 정부는 미군정부로부터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였으나, 일제시대 경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경찰조직은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서 존속하지 못하고 1948년 9월 2일자 내무부 훈령 제1호에 의거 내무부 산하 일개 국(局)에 불과한 치안국으로 축소, 격하되었고, 미군정하에 설치된 경무총감부와 지구경찰서제를 폐지하는 한편, 경찰계급 중 감찰관을 삭제하여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경찰계급을 간소화하였다<sup>8)</sup>.

당시 국회의 정부조직법 입법과정에서 경찰을 독립부처인 치안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축소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경찰업무의 민주적·능률적 수행보다는 일본제국주의 시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인 저항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경찰권 약화론이 우세, 표결 결과 104대 80으로 축소안이 채택되어 1948년 11월 4일부터 내무부 치안국을 중앙경찰행정기구로 하는 국립경찰로 재조직하게 되었다<sup>9)</sup>.

8) 허남오, 2003,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300쪽.

9)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 책』, 47쪽.



<그림 2-1> 내무부 기구표<sup>10)</sup> (1948. 11. 4.)

## 2) 치안국의 경찰기구

경무부가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됨에 따라 1948년 11월 7일 대통령령 제18호에 의하여 내무부 치안국은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수사지도과, 사찰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및 소방과 등 9개과로 개편되었고, 이어서 1949년 2년 3일자 대통령령 제53호에 의하여 각 관구경찰청이 각 도 경찰국으로, 각 관구경찰서는 각 지방명으로 환원하여 호칭하게 되었다.

그 후 1949년 7월 경제과를 폐지하였고, 1949년 10월 23일에는 교육과를 신설하였으며, 1950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3호 내무부 직제개정에 의하여, 치안국 기구 중 소방과와 여자경찰과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3월 18일 치안국의 기구는 경무과, 교육과, 보안과, 사찰과, 수사과, 감식과 및 통신과 등 7개과로 축소되었다.

10) 허남오, 2003, 『앞의 책』, 동도원, 301쪽;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 책』, 48쪽

### 3) 한국전쟁의 발발과 경찰활동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경찰은 구국의 일념으로 국군과 함께 전투부대로 참전하게 되었는데, 경찰행정도 전시체제에 맞추어 1950년 7월 27일자로 치안국 교육과를 폐지하고 수사과와 사찰의 양과를 정보 수사과로 통합하는 동시에 보급과를 신설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전투경찰 보급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부국장제를 신설하였다.

한편 경찰은 6.25동란중 92,800여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전후(戰後) 경찰은 주로 공비토벌 임무에 투입되었는데, 1953년 7월 6일 공비소탕의 임무를 전담할 부서로서 치안국에 경비과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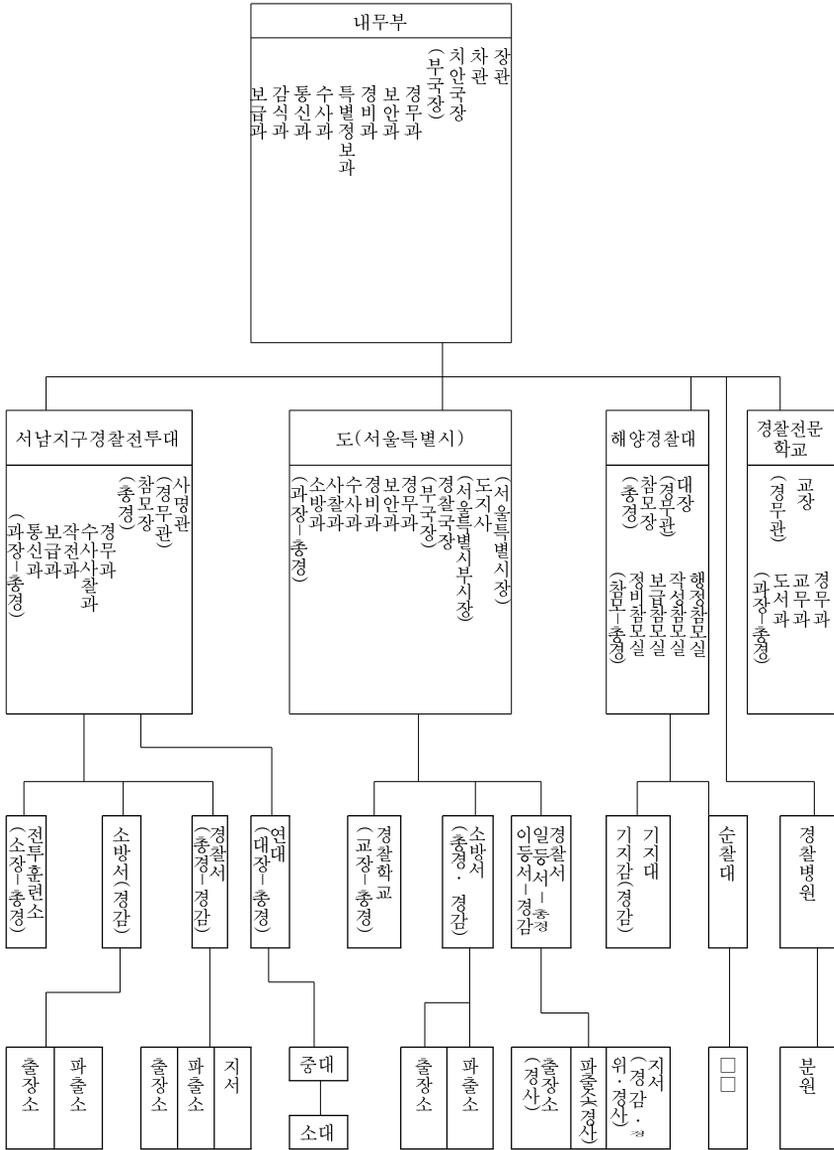
1953년 12월 23일 정부의 해양주권 선언으로 경찰은 평화선 경비를 위한 해양경찰대를 발족하였으며<sup>11)</sup>, 이어서 경찰항공대도 신설하였다. 1953년 5월 1일에는 공부소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를 남원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는 1955년 7월 1일자 해체되었는데, 이 무렵부터 경찰의 전투임무는 일단락 지어지고 전쟁 중 통합된 정보수사과가 다시 수사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되었다.

또한 치안국의 부국장제와 보급과가 폐지되었으며, 범죄수사 과학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1953년 3월 5일 대통령령 제1021호로 치안국 감식과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직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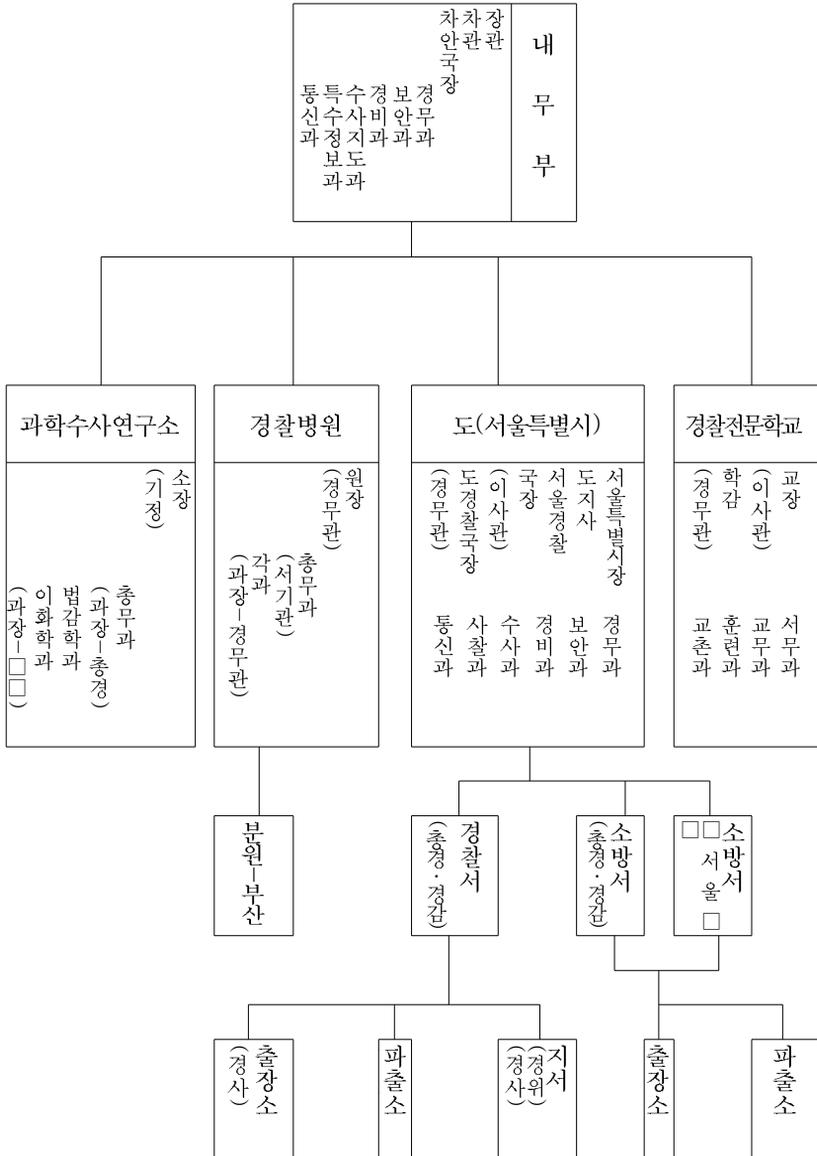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기구조정은 모두 휴전 후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1956년까지 조정된 기구는 그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

11) 그러나 해양경찰대는 1955년 2월 신설된 상공부 산하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 책』, 48쪽 참조.



<그림 2-2> 치안국기구표(1953)



<그림 2-3> 치안국기구표(1956)

### 3. 한국전쟁과 부산경찰

#### 1)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의 변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어 치안국이 출범하였으나, 당시 부산경찰이 속해 있던 제7관구경찰청은 경상남도경찰국으로 개칭되었을 뿐, 부산경찰서, 북부산경찰서, 수상경찰서, 동래경찰서, 부산여자경찰서 등 부산지역의 경찰관서들은 여전히 경상남도경찰국 산하의 경찰관서로만 남아 있어야 했다. 이는 1949년 8월 15일 부산부(釜山附)가 부산시(釜山市)로 승격되어 부산시시대를 맞이한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파출소 신설 및 관할 조정 등의 소규모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을 뿐인데, 먼저 1949년 3월 31일 장안지서로 흡수되었던 동래경찰서 송정파출소가, 같은 해 5월 18일 월내출장소가 각 부활되었으며, 1950년 6월 8일 현 당감파출소의 전신인 철도경찰대 조차장파출소가 신설되었다.

부산지역은 6·25동란의 발발을 계기로 경찰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즉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남침이 가속화되자 정부청사와 치안국은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부산지역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이자 각처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의 수용처로서 혼란상태가 가중되어 치안여건이 일시에 크게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부산의 경찰행정은 피난민의 구호와 국가 중요시설 경비, 그리고 무장공비의 토벌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주요 부산경찰의 활동을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무장공비의 토벌을 위하여 동래경찰서 기룡, 칠암, 공덕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51년 3월 24일 동래경찰서 비행장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7일 현 범전파출소의

전신인 철도경찰대 부전경비초소를, 같은 해 8월 13일에는 부산경찰서 수정파출소를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1952년 9월 6일 부산경찰서 대청동파출소를, 같은 해 2월 7일 충무동파출소를 각 신설하였고, 같은 해 4월 2일 동래경찰서 역전파출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월내, 칠암, 공덕, 석대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52년 10월 15일 부산철도경찰서가 해체되면서 그 기능 및 관할 대부분이 부산경찰서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 11월 7일 항만파출소가 승격, 개칭되었다. 1952년 12월 8일 해체된 철도경찰대 조차장파출소를 북부경찰서 당감파출소로, 철도경찰대 부전경비초소를 북부산경찰서 범전파출소로 개편하였다.

## 2) 종전 이후 부산경찰의 변화<sup>12)</sup>

전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인 1954년 3월 9일 동래경찰서 거제지서를 거제파출소로 승격, 개칭하였고, 같은 해 12월 8일 부산진경찰관파출소를 북부산경찰서로 이관하였다. 1955년 7월 21일 수상경찰서 영도파출소를 대교경찰관파출소로 개칭하였고, 같은 해 7월 29일 수상경찰서 영선파출소를 신설하였다.

전쟁을 겪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1956년도 당시 부산지역에는 16개 파출소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하는 부산경찰서, 9개의 파출소 및 6개의 지서를 관할하는 북부산경찰서, 6개의 파출소를 관할하는 수상경찰서, 그리고 4개의 파출소 및 8개의 지서를 관할하는 동래경찰서와 1개의 여자경찰서 등 총 5개의 경찰서가 있었다.

---

12)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 책』, 49~52쪽의 내용을 재정리함.

<표 2-1> 부산의 경찰서 현황(1956.12.31)<sup>13)</sup>

	지서수	파출소	출장소	경찰 학교	특경대	기마대	계	적요
본국	-	-	-	-	-	1	1	-
부산경찰서	2	16	-	-	1	-	19	-
북부산경찰서	6	9	-	-	-	-	15	-
수상경찰서	-	6	-	-	-	-	6	-
동래경찰서	8	4	-	-	-	-	12	-
부산여자경찰서	-	-	-	-	-	-	-	-
계	16	35	-	-	1	1	53	-

b전후 국가재건 사업이 활발해진 1957년 4월 북부산경찰서 문현파출소를, 같은 해 6월 12일 북부산경찰서 양정경찰관파출소를 각각 신설하였고, 같은 해 7월 6일 수상경찰서 본파출소를 남향동경찰관파출소로 개칭하였다.

1950년대 중반기이후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었고, 특히 수도서울과 함께 동란 당시 피난지로서 유입인구가 급증한 부산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자연이 치안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의 신설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표 2-2> 부산의 인구변화 추이<sup>14)</sup>

(단위 명)

연대별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04
인구수	844, 134	1, 163, 518	1, 943, 958	3, 249, 643	3, 892, 820	3, 786, 033	3, 684, 153

13) 경상남도, 1956, 『경상남도 도세일람』, 경상남도, 참조.

14) 부산광역시 통계연보([http://www.busangokr/open\\_content/databank/statistics/03pdf](http://www.busangokr/open_content/databank/statistics/03pdf))참조

따라서 1957년 7월 26일 부산경찰서를 중부산경찰서로, 북부산경찰서를 동부산경찰서로, 수상경찰서를 영도경찰서로서 각 개칭하였고, 중부산경찰서로부터 서부산경찰서를 분리, 신설하여 완월동(현 충무동, 초장동 일부), 남부민동, 동대신동, 서대신동, 아미동, 부민동, 사하, 다대동 일대를 관할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동부산경찰서(전 북부산경찰서)로부터 부산진경찰서를 분리, 신설하여 가야, 용당, 대연 등 3개 지서와 부전, 양정, 범일, 전포, 문현, 범전, 당감 등 7개 파출소 등을 관할하게 하였고, 전포파출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산경찰서 부산진경찰관파출소와 초량 1파출소를 동부산경찰서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이어서 1957년 9월 16일 동부산경찰서 수성파출소를, 같은해 12월 1일 서부산경찰서 아미파출소를, 1958년 2월 7일 영도경찰서 동삼지서와 서부산경찰서 충무, 감천파출소를 각 신설하였고, 1956년에 폐지된 동래경찰서 석대파출소를 부활시켰다.

1958년 7월 5일 운수경찰서 초량역파출소를 동부산경찰서 초량3파출소로 개편하였고, 같은 해 7월 29일 영도경찰서 영선파출소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8월 24일 부산진경찰서의 위치를 부전동 64번지에서 259-4번지로 이전하였고, 같은해 11월 1일 부산진경찰서 범일파출소를 신설하였다.

1957년 7월 26일자로 부산시내 경찰관서의 개편에 따라 1957년도까지 부산지역의 경찰서는 중부산경찰서, 동부산경찰서, 서부산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영도경찰서, 동래경찰서, 여자경찰서 등 총 7개로 늘어났고, 그러한 체계는 그 후 별다른 변화없이 1963년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경찰이 부산직할시 경찰국으로 독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1951년 이후 부산지역내 경찰서의 증설 현황 및 1957년 7월 26일 단행된 부산지역 경찰관서 증·개편에 따른 각 경찰서 관할 파출소 및 그 소

재지 현황은 <표 2-3>와 <표2-4>과 같다<sup>15)</sup>.

<표 2-3> 부산시 경찰관서의 변경일람

년도	서수	지서수	파출소수	출장소수	특경대	기마대	경비초소	계
1951	부산경찰서	1	14	1				16
	북부산경찰서	7	5					12
	수상(水上)경찰서		6					6
	동래경찰서	11		4				15
1956	부산경찰서	2	16		1			19
	북부산경찰서	6	9					15
	수상경찰서			6				6
	동래경찰서	8	4					12
1975	중부산경찰서		9					9
	동부산경찰서	2	9					11
	서부산경찰서	3	8		1			12
	부산진경찰서	3	7					10
	영도경찰서	1	7					8
	동래경찰서	8	5	2				15
1960	중부산경찰서		9					9
	동부산경찰서		9					9
	서부산경찰서	3	8					11
	부산진경찰서	2	9					11
	영도경찰서	1	7				6	14
	동래경찰서	10	5	2				17

15) 경상남도, 1952, 『도세일람』; 경상남도, 1956~1958 『도세계일』; 부산시, 1961, 『시세일람』; 부산지방경찰청, 2000, 『앞의책』, p. p.52~53.

<표 2-4> 부산시내 경찰서 관할 파출소 현황(1957.7.26.현재)

서명	소재지	비고
중부산경찰서 산리파출소 영주동파출소 역전파출소 동광동파출소 창선동파출소 부평동파출소 보수동파출소 대청동파출소 항만파출소	부산중구 대창동 1-41 영주동148 대창동2-7의3 중앙동 4-16의1 대교동3-37의2 창선동3-37의2 부평동2-57의2 부평동3-1의3 대청동1-7 중앙동 4-17	
서부산경찰서 사하지서 다대지서 동대신동파출소 서대신동파출소 구덕파출소 부민동파출소 아미동파출소 완월동파출소 남부민동파출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 2-36 괴정동747 다대동1140 동대신동2-409 서대신동2-377 서대신동3-288 부민동2-5 아미동2-126 완월동1-30 남부민동153	
동부산경찰서 제일초량파출소 제이초량파출소 제삼초량파출소 부산진파출소 수정동파출소 수성파출소 좌천동파출소 자성대파출소 범천동파출소	부산 동구 수정동 1 초량동296의 14 초량동135 초량동6동45 수정동1 수정동822 수정동521 좌천동386 범일동587 범일동80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대평파출소 남항파출소 봉래파출소 청학파출소 연안파출소 영선파출소 동삼지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 4-3 대교동5-1,550 대평동2-2,008 남항동2-209 부산 영도구 봉래동 5-49 청학동313 대교동 1-17 신선동 3-781 동삼동 368	

서명	소재지	비고
부산진경찰서 부전파출소 범일파출소 가야지서 당감파출소 범전파출소 양정파출소 전포파출소 문현동파출소 용암지서 대연지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64 부전동 500 범일동 1278 가야동 171 당감동 253 범일동 247 양정동 373 전포동 623 문현동 403 우암동 56 대연동 333	
동래경찰서 직할파출소 온천파출소 거제파출소 역전파출소 비행장파출소 석대파출소 송정파출소 해운대지서 기장지서 장안지서 북면지서 일광지서 정관지서 수영지서 철마지서 구포지서 사상지서	부산 동래구 수안동 166의3 수안동 166의 3 온천동 169 거제동 849 민락동 122의 5 재송동 6 석대동 248 동래군 기장면 송정리 323 부산 동래구 중동1, 394 동래 기장면 동인리 1,931 장안면 좌천리 204의2 북면청룡리 15 일광동 삼성리 57 정관면 방곡리 274의1 부산 동래구 광안리 산의18 동래군 철마면 장전리 317의5 구포읍 구포리 1,060 사상면 괘법리 833의 2	

### Ⅲ. 임시수도기(1950 ~ 1953) 부산 경찰체제

#### 1. 1950년~1953년까지 부산의 상황<sup>16)</sup>

##### 1)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를 기하여 북한은 기습남침을 단행한다. 이에 대해 U.N한국위원단이 서울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투행위에 대하여 즉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고
2. 정전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남북한 양측대표와 회견할 용의가 있으며,
3. 나아가서 한국통일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희망하며,
4. 이를 위해 양측의 협력을 요망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를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6월 28일에는 UN안보위원회가 북한괴뢰군의 제재를 가결하였으며, 북괴군이 서울을 점령하였다.

6월 30일에는 부산시가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식량확보         | 2. 생활필수품 통제              |
| 3. 재난수          | 4. 기획                    |
| 5. 운수           | 6. 정보                    |
| 7. 상수도설비 및 교량정비 | 8. 시유건물정비                |
| 9. 구호           |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7월1일에는 연합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였고, 7월 2일

1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시사자료 II, 1998, pp.622~634의 연표를 참고로 하여 재정리한 것임.

부산시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가무, 음악 엄금과 주류판매 등 비상대책을 강행하였다. 7월 6일에는 부산에 한·미연합 해군사령부가 설치되었고, 7월 8일에는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7월 16일 정부를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하였고, 부산시는 비상공작대를 조직하였다. 7월 17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되었다. 7월 26일에는 부산시장이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일부 부유층의 비협력을 지적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8월 8일에 낙동강 연안의 경비에 각 경찰국 단위로 전투지역을 설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찰국	전방지휘소	성북지서(달성서)
	전투지경	칠곡 병력 1개중대 성북 병력 1개중대
경기국	전방지휘소	와촌지서(경산서)
	전투지경	청추 병력 1개대대 와촌 병력 1개대대 진양 병력 1개대대
충남국	전방지휘소	공산지서(대구서)
	전투지경	공산병력 2개대대
충북국	전방지휘소	지천지서
	전투지경	지천병력 2개대대
신총경부대	전방지휘소	월배지서
	전투지경	화원 논산 가창 병력 해당지구전경찰병력

8월 18일에는 정부기구들이 부산으로 이전되었고, 교통부본부가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수송본부도 부산서 대구로 이동하였다.

9월 1일에는 국회가 부산문화극장에서 개원하였다. 9월 19일에는 부산시가 수도가 되어 돌입축하식이 거행되었다. 다시 9월 27일에는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였고, 중앙청에서 정부환도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정부사무가 개시되었다.

10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경찰국, 경기도경찰국, 전라북도경찰국, 철도경찰부대 등이 수복되었지만,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제외되었다. 10월 25일에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11월 2일에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 결의하였고, 11월 7일에는 경남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기구별 일률적인 감원계획(약 4,000)을 발표하였다. 11월 10일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을 선포하였다. 12월 15일에는 재무부가 부산시에 재무부 분실을 설치하였다.

## 2) 1951년 1월부터

1951년 1월 1일에는 중공군 6개군단이 남침하여 38도선을 돌파하였다. 이어 1월 3일 정부는 부산시를 임시수도로 결정하였다. 1월 4일 다시 정부가 부산으로 재이전하였다. 1월 5일 중공군은 서울을 재침입하였고, 1월 7일 문교부는 부산시청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월 17일 부산경찰서는 방첩주간을 설치하여 오열암약에 대비하였다. 1월 19일 계엄사령부는 부산역-초량-범일동 특수차량의 통금 및 등화, 음향관계 위반자를 엄벌하였다. 1월 26일 해병대가 인천에 상륙하였고, 국회가 부산에서 재개원을 하였다. 2월 14일에는 부산지구헌병대가 단체불법행위를 엄단한다고 발표하였고, 2월 25일에는 국방부 정훈국에서 부산분국을 조직하였고, 부산에 서울특별시 행정청이 설치되었다.

3월 5일에는 부산시 인구현황조사결과 일반인만 약 88만 9천 여명으로 집계되었다. 3월 8일에는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3월 20일에는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3월 23일 국방부는 6시를 기해 부산, 대구를 제외한 8개시 28개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월 3일에는 국민회 부산지부에서 「부산특별시(안)」 추진에 있어 국회에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4월 7일에는 대구, 부산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4월 8일에는 경남북, 충청남북(충주군의 2개군 제외), 전라남북지역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령을 실시하였다. 5월 14일 「부산특별시(안)」이 국회내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6월 7일 서울특별시 부산행정청에서는 서울시 각 구청에 등록된 서울시민에게 석유구입권을 배부하였다. 6월 29일에는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개시하였다. 7월 1일에는 부산행정청을 중심으로 한 피난시정을 서울본청 중심의 운영으로 환원하고, 부산을 위시한 각지에 출장소의 설치로 피난행정을 수행하였다. 7월 3일에는 국회가 부산특별시 승격(안)을 유보하기로 가결하였다. 7월 11일에는 부산 송도앞바다에 이리호가 침몰하여 사망자가 55명이 발생하였다. 7월 18일 기준으로 재무, 보건, 문교, 외자청, 고시위원회, 기획처 등을 제외하고 정부기구가 환도를 완료하였다. 7월 초부터는 휴전회담 본회의가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8월 24일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이 공포되었고, 9월 25일에는 경남경찰국 부산경찰서 등지에서 민·경좌남호가 개최되었다.

10월 13일에는 경남도경에서 치안국장 회담이 개최되어 쌀매점 단속과 자동차 재차정비관계를 협의하였다. 11월 6일에는 부산시동회연합회가 세궁민대상 배급쌀의 증가를 당국에 진정하였고, 11월 19일에는 부산시에서 국채소화운동에 성적불량인 동회를 처벌키로 결정하였다.

11월 20일에는 임시수도 부산에 공비폭동을 계획한 일당 18명이 체포되었다. 11월 26일 경남도경은 군사시설 파괴음모자 15명을 체포하였고, 11월 30일에는 부산시에서 시국의 혼란에 따라 10일간에 걸쳐서 도민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11월 한달간 부산경찰서는 사회정화차원에서 불량자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100여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부산, 대구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2월 8일에는 부산·부산진·동래세무서 합동 단속으로 밀주단속을 실시하였다. 12월 10일에는 경남도경찰국에서 인공당 경남도부책을 체포하였다.

### 3) 1952년 1월부터

1952년 1월에 부산공업고등학교가 미군 실화로 전소되었고, 각도 피난민 총수가 7백만명으로 추정되었다.

2월 18일에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반민의」 국회의원 소환 요구 데모가 발생하였고, 4월 25일에는 전국 시·읍·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2일에는 경남도가 부산시 전 극장에 위생시설을 조사하였다. 5월 7일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장(민선)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민선 부산시장에 손영수 시장이 취임하였으며, 역사적인 첫 시의회가 개원하여 의장에 김락제, 부의장에 박교준 의원이 선출되었다. 5월 20일 국무회의는 부산을 전시도시로서 택시 대량 정비와 요정 폐쇄를 결정하였다. 5월 25일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전남북에 계엄(~7월28일)을 선포하였다. 5월 26일 부산정치과동, 즉 대통령 직선제 감행으로 야당의원 50명이 헌병대에 연행되었다. 5월 27일 경남도의회에서 국회해산결의안이 가결되었다. 5월 28일 국회는 부산지구 계엄의 즉시 해제를 결의하였지만, 정부는 이에 불응하였다.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외국(미국 등)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회장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6월 25일에는 부산시 충무로에서 6.25 2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저격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다음날 범인 김시현이 체포되었다. 7월 4일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발취개헌안 이 통과되었다. 7월 26일에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다. 8월 13일 국회 본의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대영의 당선이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는 정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8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680호, 「경찰서 직제에 관한 건」 이 공포되었다.

9월 18일에는 경남도가 군경 합동으로 전시생활 위반자 단속을 시작하였다. 10월 10일에는 부산에 밀입국한 일본인 기자가 추방되었다.

10월 27일에는 부산시 직제 규칙이 개정되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무국의 학무과를 폐지하고, 사계과를 신설하여 이전에 내무과에서 담당하던 예산의 조 및 결산의 심사, 지방채, 기부금품의 모집, 국채 및 저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산업건설국의 상공과를 산업과로, 농림과를 시량과로 바꾸고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즉 산업과는 상업, 물자, 시장, 도량형, 특허, 농림, 농지, 농지개량, 축산, 광업, 공업, 수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시량과는 양곡의 매입과 배급, 식량의 수급조정, 양곡의 가공, 양곡수송과 보관, 양곡의 소비규정, 신탄(석탄), 토탄의 수급조정과 배급, 연탄공장, 신탄, 석탄 및 양곡관계 단체의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케 하였다.’

11월 6일에는 광복동 달러 여상인을 살해한 범죄자가 부산지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 1953년 1월부터

1월 7일 부산세관은 전년도 밀수 적발이 673건이고, 금액은 100억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1월 16일에는 전투경찰 독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1월 30일에는 부산국제시장에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1월 31일에는 부산시가 3국 11과를 4국 12과로 확장키로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다.

1월 중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주요사건을 보면, 부산전과감시국 화재 발생, 부산다대포에서 여객선 창도호 침몰(익사229명) 등이 있었다.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호에 의해 화폐개혁을 단행, 화폐단위를 100 : 1로 절하하여 원을 환으로 표시토록 하였다. 4월 23일 부산시직제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중전의 산업건설국을 폐지하고, 대신에 건설국과 사회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총무국을 내무국으로 개칭하고 중전에 소속되어 있던 사회과와 후생과를 사회국에 둬 따라, 그 대신에 이전에 산업건설국 산하에 있던 산업과와 시량과를 내무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5월 6일에는 부산시가 수영지소를 해운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반대하는 수영주민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5월 14일 부산세관은 밀수업자 적발을 위해 감시과 인원을 보강하였다.

6월 18일 부산시가 국제도시로써 도시계획이 요망되고 있으나 당국의 무질서한 건축허가와 계획성 없는 시가지 계획으로 시민의 비난이 급증하였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하였고, 6월 23일에는 부산 시내 무허가 다방, 미장원, 이발업, 유흥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접대부 등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부산일보에 보도되었다.

6월 24일 정부의 각 부처가 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그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24일), 체신부(24일), 관재청(25일), 총무처(25일), 기획처(25일), 총리실(28일), 교통부(29일), 외무부(30일), 재무부(30일), 상공부(30일), 대법원(7월쫄), 고등법원(6월)』

6월 26일 부산시는 7월5일까지 무허가 도로점유물을 일소키로 결정하였다. 7월 3일에는 대검찰청이 서울로 복귀하였다. 8월 7일 부산시는 중앙청 각 부처의 환도에 따라 시청사의 사무실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8월 12일에는 부산시의 구호양곡 배급에 대해 경남도에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9월 1일 0시에 전국계엄령이 해제되었고, 경남도경찰국은 전국 인구동태 파악의 일환으로 경남도내의 인구조사를 한 달간 실시한다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9월 16일에는 국회가 환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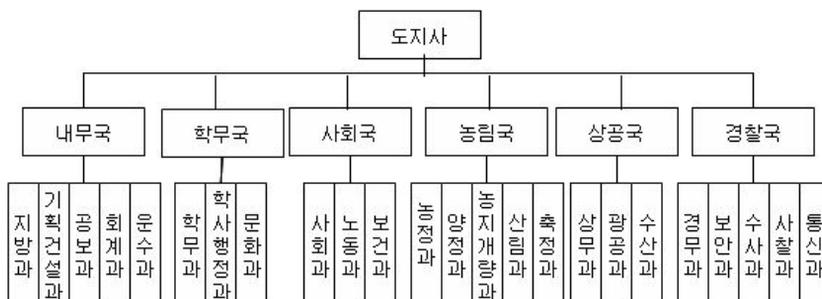
## 2. 부산경찰의 조직구조

### 1) 경상남도 경찰국의 조직구조<sup>17)</sup>

1948년 정부수립 직후의 지방행정 조직은 한시적이거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18호)에 의해 법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하였고, 도의 행정기구는 임시조치법 제4조에 의해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2호로 지방행정기관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의거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이 기간 중 경남도의 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 경상남도사 편집위원회 편, 경남도정 100년사, 1996. 12. pp. 323~33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그림 3-1 > 도기구 (1948.11.18)<sup>18)</sup>

이 기간 중의 기구를 군정시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 직속하에 비서실을 두어 기밀·공무원임면·신분상벌·복무·의식·문서 발송 및 관인관수와 타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토목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내무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과의 수를 대폭 감축하였으며,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무, 보안, 수사, 사찰, 통신과의 5개과를 두었다. 이로써 도기구는 미군정하의 6국 28과에서 1실 6국 24과로 개편하였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제도가 도입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해 도의 기구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지조치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의 부지사제를 신설하였고, 비서실이 폐지되었으며, 종전 비서실 기능이 사무국으로 이관되었고 그리고 학무국이 교육국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16조 단서규정 신설에 따라 195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322호로 ‘도의 행정기구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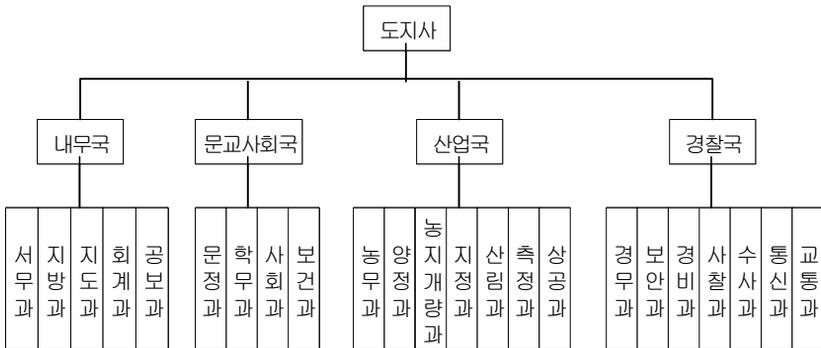
18) 상계서, p. 327 참조.

한 건'이 제정 공포 되었는바, 이에 따라 도의 기구가 축소되었다. 즉, 신설된 지 얼마 안되는 부지사제를 폐지했으며, 교육국과 사회국을 문화사회국으로 통합하고, 농림국과 상공국을 통합하여 산업국으로 개편하였다.

이 당시 국·과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무국에 세무과를 신설하였고, 내무국의 기획관리과와 운수과를 건설과로, 문교사회국의 학사행정과와 문화과를 문정과로 통합하였다. 산업국의 농지개량과를 농지과로, 상무과를 상공과로 개칭하였다.

1952년 4월 1일 징병제 실시에 따라 내무국에 병무과를 신설하고 산업국의 농지과를 농지개량과와 농정과로 분리하였다.

이후 1953년 9월 30일에는 철도경찰대의 폐지로 경찰국에 경비과와 교통과를 신설하여, 총 7개과를 두어 이전에 비해 2개과가 증가되었다. 1954년 2월 11일에는 내무국의 병무과를 폐지하고 지도과를 신설하였다.



<그림 3-2 > 도기구 (1957. 1. 1.)<sup>19)</sup>

19) 상계서, p. 328 참조.

1955년 12월 12일 법률 제377호로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의 수산 업무를 지방해무청에 이관함으로써 산업국의 수산과를 폐지하고, 농업교육과를 신설하였다.

1957년 1월 19일에는 도 경찰국의 소방과를 폐지하고 교통과를 신설하였다. 1957년 2월 12일에는 법률 제435호로 농사교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사원이 설치되었고, 반면에 농사교도과는 폐지되었다.

## 2) 부산지역 주요경찰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경상남도 경찰국 산하 부산지역의 경찰서는 모두 4개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먼저, 당시 부산시 대창동에 위치한 부산경찰서이다. 다음으로 북부산경찰서로서, 그 위치는 부산시 수정동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부산 수상경찰서이다. 부산수상경찰서는 부산시 대교로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래경찰서이다. 동래경찰서는 부산시 수안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각 경찰서별 관할구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 부산지역 경찰서의 위치와 관할구역<sup>20)</sup>

도명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상남도	부산경찰서	부산시 대창동	부산시 초량동, 대창동, 영주동, 대교동, 중앙동,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창선동, 충무로, 대청동, 대평동, 신창동, 토성동, 보수동, 동대신동, 서대신동, 완월동, 초장동, 남부민동, 압남동, 괴정동, 신평동, 하단동, 감천동, 당리동, 부용동, 부민동, 아미동, 다대동, 홍치동
	북부산경찰서	부산시 수정동	부산시 초량3, 4동, 좌천동, 범일동, 문현동, 부전동, 전포동, 양정동, 범전동, 부암동, 초읍동, 연지동, 가야동, 당감동, 개금동, 우암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대연동, 수정동, 동래군 사상면, 구포읍.
	부산수상경찰서	부산시 대교동	부산시 대교동 4, 5가, 봉래동, 영선동, 태평동, 남항동, 신선동, 동삼동, 청학동, 부산시 해안일대.
	동래경찰서	부산시 수안동	부산시 낙민4, 5동, 안락동, 수안동, 칠산동, 복천동, 명륜동, 온천 1, 2동, 장전동, 부곡동, 오륜동, 중동, 좌동, 우동, 동래군(사상면, 구포읍 제외)

20) 경찰서직제 1952. 8. 25 공포(대통령령 제680호)에서 발췌함.

### 경찰서 직제

1952. 8. 25 공포  
대통령령 제680호

제1조 경찰서를 일급경찰서와 2급경찰서로 구분하고, 일급경찰서장은 총경으로, 2급경찰서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제2조 경찰서의 등급구분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경찰서에 서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제4조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아 경찰과 소방(소방서 설치지 이외의 경찰서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경찰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경찰지서 또는 경찰관 파출소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경찰관 파출소도 둘 수 있다.

제7조 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와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본시행령에 필요한 세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공무원 정원수는 추후삼입한다.

당시 부산지역에 설치된 경찰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산경찰서

일제치하인 1937년, 현재 부지에 부산경찰서로 개서하여 부산시 전역을 관할하던 부산시 최초의 경찰서로서 영주동 일부에 수목보호 경찰관이 주재하였고, 영주, 산리, 보수정, 화정, 부평동, 본정, 역전파출소로 출발하게 되었다.

미군정하인 1946년 5월 18일 부산경찰서를 제7관구경찰청 소속 제15구경찰서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6월 영도지역을 수상경찰서로 이양하고, 1948년 부산경찰서 화정파출소를 창선동파출소로, 부산경찰서 영주동 수목보호 경찰관이 주재한 곳을 산리파출소로 개칭하였다.

1952년 9월 6일 부산경찰서 대청동파출소를 신설하였고, 1953년 10월 15일 제16구 철도경찰서 해체로 항만 대부분이 부산경찰서로 이양되었으며, 11월 7일 부산경찰서 항만지서를 신설하여 12월 7일 이를 항만파출소로 개칭하였다.

해방 후 좌익의 폭동 진압, 6.25 전쟁과 공비토벌 등으로 2대 경찰서장인 경감 권위상이 순직하는 등 경찰관 4명이 사상 당하였다.

1957년 7월 26일 제15구경찰서를 중부산경찰서로 개칭하고 8월 서부산경찰서 신설로 완월동, 남부민동, 동대신동, 서대신동, 구덕, 아미동, 부민동, 사하, 다대 등 서구지역을 서부산경찰서에 이양하고, 초량 일부 파출소를 동부산경찰서에 이양하였다.

### (2) 북부산경찰서

1937년 5월 1일 부산경찰서(현 중부경찰서)로부터 분할되어 북

부산경찰서로 창설하였다. 1957년 7월 26일 동부산경찰서로 개칭되어 1963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승격에 따라 동부경찰서로 개칭되었으며, 1988년 1월 18일 청사 개축으로 「교육위원회」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중, 1988년 12월 1일 신청사 준공으로 현 위치에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수상경찰서

1924년 3월 3일 부산수상경찰서로 창설 (부산시 중구 대교동 위치) 하면서, 영도주재소(현재 대교파출소), 남항 주재소(현재 남항파출소), 대풍포 주재소(구 대평파출소) 3개소를 두고, 영도구 행정구역과 부산해안 전역 치안을 담당하였다. 1947년 10월 8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4가 63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1957년 7월 26일 영도경찰서로 개칭(대통령령1298호)되면서 청사 노후로 1957년 12월 31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4가 3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다가 과·계 증설로 1988년 12월 15일 현 청사를 신축하였다.

1946년 7월 20일 청학파출소를 개소하면서 치안 및 해안선 취약지를 감안하여 1956년 7월 29일 영선지서를 개소하였고, 같은 해 영도주재소를 대교지서로, 남항 주재소를 남항지서로, 대풍포 주재소를 대평지서로 각각 개칭하였다.

또한, 1958년 2월 7일 동삼지서를 신설하고, 1963년 5월 4일 대한선박공사로부터 영도구 영선1가 125번지에 19평을 기증받아 신선파출소, 1974년 1월 8일 청학파출소를 신설하였다.

### (4) 동래경찰서

동래경찰서는 일제시대인 1914년 9월 1일 동래군 전체의 치안 수요를 관장하기 위해 창립,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어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로 경남경찰국 산하 경찰서로 재편

되었다.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 및 부산시경찰국 창설로 부산시경 산하로 거듭나게 되었고, 1964년 7월 11일 직할파출소를 수안파출소로 개칭하였으며, 1964년 9월 26일 온천, 거제, 사직파출소를 신설하였고, 1966년 5월 18일 명륜동파출소 신설하였으며, 1972년 6월 27일 온천 2파출소를 신설하고, 1973년 7월 27일 수안, 명륜, 사직파출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다.

#### IV. 임시수도기 부산 경찰활동의 분석과 평가

##### 1. 경무분야

경무기능은 유기적 조직체인 경찰조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부관리의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사무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법집행기관이다.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특히, 엄격한 상명하복의 규율과 조직의 강력한 일체성이 요청되며, 내부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경무부서는 이와 같은 모든 면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직, 인력을 관리하고, 조직원의 교육훈련, 후생관리 기타 경찰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시설, 문서, 재무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 당시 경무과의 구성은 경무, 인사, 경리, 장비보급 등을 위주로 기능이 수행되었으며, 기획이나 민원봉사등의 기능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수도기의 부산경찰에 있어서 경무기능은 경찰의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 기능에 충실하였으며, 경찰관의 급여지급 등 재무 관리 등의 기능도 수행하였지만, 후생관리 등 경찰관의 복지후생기능 등의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2. 방법분야

우리나라 방범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경무국 부서의 하나로 공안과가 설치되었고, 지방의 경우는 각 시,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어 그 산하에 보안과가 설치되어 풍속, 교통, 위생, 철도, 총포·화약류, 부녀·노유보호, 경비, 총기, 탄약, 차량 등 광범위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임시수도기의 부산경찰에 있어서 방범활동은 오늘과 같은 독립된 방범부서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예방적 차원의 방범기능들이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범죄에 대한 사후적 진압 위주의 경찰개념이 중요시되었던 시기인 만큼 사전적 예방 차원의 방범경찰활동은 경찰의 기능으로서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시상황이었고, 부산지역 역시 전시체제하에 놓여진 상황에서 경찰의 기능은 소위 전시경찰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의 방범기능은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방범기능을 수행한 부서는 보안과였는데, 보안과는 보안계, 방범소년계, 교통계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범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며, 방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서는 보안계의 방범소년계가 유일할 정도였다<sup>21)</sup>.

방범경찰의 기능으로서 풍속사범의 단속기능도 포함된다. 풍속사범의 단속은 오늘날 생활안전경찰의 중요한 기능이다. 임시

21) 부산경찰사편집위원회 편, 상계서, p.227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수도기 부산지역의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은 강력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전시상황하에서 음주가무의 금지, 밀주의 단속,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그리고 1950년 7월 2일 가무, 음악 엄금과 주류 판매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은 그 실례이다.

### 3. 수사·형사분야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중앙의 치안국과 각 시·도 경찰국에 수사과가 설치되었는 바, 경상남도 경찰국에서도 수사과가 설치되어 수사경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임시수도기 부산지역 경찰서에도 수사과가 설치되어 수사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비상계엄 또는 비상계엄체제하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은 군의 지도감독하에 놓여져 있었던 바, 당시 군 헌병대와 함께 수사 활동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군·경 공동의 수사 활동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1951년 7월 11일 부산 송도 이리호 침몰사건

1951년 10월 13일 쌀매점 단속

1951년 11월 20일 임시수도 부산의 공비폭동

1951년 11월 26일 군사시설 파괴음모 사건

1951년 12월 10일 인공당 경남도부책 체포사건

---

2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편, 전계서, p. 326~ 337의 내용에서 발취하여 재정리함

1952년 6월 25일 부산시 충무로 6.25 2주년 기념식장 대통령 저격사건  
1952년 9월 18일 군경 합동전시생활위반자 단속  
1952년 11월 6일 광복동 달러 여상인 살해사건  
1953년 1월 부산전파감시국 화재 발생, 부산다대포에서 여객선  
창도호 침몰사건 등

당시 부산경찰의 수사·형사활동은 전시상황에서 시국치안에 치중하였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사 활동과 전시 반국가사범 및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보여 진다.

#### 4. 경비분야

1948년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상남도 경찰국은 경무, 보안, 수사, 사찰, 통신과의 5개과를 두었다. 1953년 9월 30일에는 철도경찰대의 폐지로 경상남도 경찰국에 경비과와 교통과를 신설하여, 총7 개과를 두어 이전에 비해 2개과가 증가되었다. 1953년 이후 경비과의 신설은 새로운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한국전쟁 이후, 소위 남한에 잔류한 공비토벌이 경찰의 새로운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지리산 등 산악지역에 은신하면서, 공공기관이나 양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습격하는 소위 빨치산들이야 말로 경찰이 소탕해야 할 중요한 치안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 경찰국에 경비부서를 신설하고, 이하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신설된 경비부서에서는 전쟁이후 민생안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경찰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에 의한 공비토벌작전에의 참여나 지원은 경비기능이 중요한 경찰의

역할임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정보분야

1948년 경상남도 경찰국이 창설되면서, 사찰과가 설치되어 사찰기능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찰과는 존재하였다. 즉, 경찰서는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8호 『내무부직제』에 의하여 정보기능이 사찰계로 편제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6월 1일 대통령령 제1583호에 의해 사찰계가 정보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1968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497호에 의해 정보계가 정보과로 승격되었다.<sup>23)</sup>

임시수도기의 부산경찰에 있어서 사찰기능은 그 당시 사정이 전시임을 감안할 때, 주로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적의 침투에 관한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한 사찰기능이었다.

그 당시 부산 경찰의 사찰경찰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50년 7월 26일 일부 부유층의 비협력 지적,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 담화 발표

1951년 1월 17일 부산경찰서 방첩주간을 설치, 오염암약에 대비

1951년 2월 14일 부산지구헌병대가 단체불법행위 엄단 발표

1951년 11월 부산경찰서 부랑자 100여명 검거

결국 임시수도기 부산 경찰의 정보(사찰)기능은 전시체제하에서 전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사찰에 그 중점이 두어진 경찰활동으로 보여 진다.

---

23) 부산경찰사편찬위원회 편, 2000, 『앞의 책』, p. 484.

## 6. 보안분야

보안경찰활동은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의 혼란속에서 대공업무로서 일반 정보업무와 함께 북한의 대남공작 분쇄 및 국내의 용공혁신계의 소탕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1948년 국립경찰이 창설되면서 경상남도 경찰국에도 임시조직법 제4조에 의해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2호로 지방행정기관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보안과가 설치되었다.

임시수도기 부산경찰활동에 있어서 보안기능은 주로 대공, 방첩기능에 치중하였으며, 전시체제하에서 각종 군사정보를 비롯한 전시에 필요한 보안경찰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각 경찰서별 보안경찰조직은 정보기능과 통합되어 정보보안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보안기능은 주로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간첩 등 기타 안보위해자에 대한 보안기능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경무부 시대의 부산경찰,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경찰활동,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활동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임시수도기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부산 경찰체제를 고찰하면서, 1950년~1953년까지 부산의 상황과 부산경찰의 조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임시수도기 부산 경찰활동을 경무분야, 방법분야, 수사·형사분야, 경비분야, 정보분야, 보안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면서, 각 분야별 경찰활동을 평가해 보았다.

임시수도기 부산경찰활동은 한국전쟁하에서 후방를 교란하는

불순분자의 척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질서유지 그리고 전시체제하에서 경찰의 전투지원 등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임시수도기의 부산경찰활동에 대한 연구는 전시체제하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역사적 자료의 발굴을 통하여 전시경찰의 모델을 만든다면, 그 학문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앙 및 지방경찰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은 경찰청이나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들로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찰사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사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서지학적 연구나 연구목록의 정리 수준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경찰학분야의 지역연구성과물들이 향후 지역경찰학 연구의 기초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1995, 『한국사 1~26』, 한길사
- 경기지방경찰청, 1994, 『경기경찰 역사와 지리』, 경기지방경찰청
- 경상남도, 1996, 『경남도정 100년사』, 경상남도편집위원회  
경우회 편, 1995, 『한국경찰사』, 경우회
- 경찰대학(a) 편, 2005, 『경찰학 개론』, 경찰대학
- -----(b) 편, 2005,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 -----(c) 편, 2005, 『한국경찰사』,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 편, 1994, 『경찰종합학교 50년사』, 경찰종합학교
- 경찰청(a), 1995, 『경찰50년사』, 경찰대학
- ----(b), 1994, 『한국경찰사Ⅳ』, 경찰청
- ----(c), 1996~2000. 『경찰백서』, 경찰청
- ----(d), 1996-1999,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e), 2002, 『내부자료집』, 경찰청
- ----(f), 2000, 『경찰실무전서』, 경찰청
- 김덕룡, 1997, 『한국제도사연구』, 일조각
- 김석준, 1996,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대출판부
- 김승무, 1966, 『포도청에 대하여』, 향토서울 26호.
- 김운태, 1986,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 김형중(a), 1991,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 -----(b), 1991, 『한국중세경찰사』, 수서원.
- 노유희, 1984, 『90년대를 향한 국가발전과 지방행정의 좌표』, 지방행정연구소
- 대한경제일보사, 1989, 『한국경찰의 발자취』, 대한경제일보사
- 박동서, 1996, 「경찰행정사」, 『행정논총 4』, 서울대 행정대학원
- 법무연수원, 1992~2006, 『범죄백서 1992~2006』, 법무연수원
- 부산시사편찬위원회a, 1989, 『부산시사 Ⅰ』, 부산직할시
- -----(b), 1990, 『부산시사 Ⅱ』, 부산직할시
- -----(c), 1991, 『부산시사 Ⅲ』, 부산직할시
- -----(d), 1991, 『부산시사 Ⅳ』, 부산직할시
- -----(e), 『시사자료 Ⅰ』, 부산직할시
- -----(f), 『시사자료 Ⅱ』, 부산직할시
- 부산지방경찰청, 2000, 『부산경찰사』, 부산지방경찰청
- 서울경찰국, 1974, 『서울경찰연혁사』, 서울경찰국
- 신상준, 1997,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한국복지행정연구소

- 이현희, 1979, 『한국경찰사』, 덕현각
- 전남지방경찰청, 1992, 『전남경찰사』, 전남경찰청
- 정진환, 1998, 『경찰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제주경찰국, 1990, 『제주경찰사』, 제주경찰국
- 충남경찰국, 1986, 『충남경찰사』, 충남경찰국
- 최종술(a), 2004,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제주도의회 의원 연찬회(2004. 9. 13)』
- ----(b), 2004,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제도 변화에 관한 이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c), 2004, 「자치경찰제 정부(안)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4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d), 2005,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보고서 2005.
- 치안국, 1958, 『경찰10년사』, 내무부치안국
- -----, 1972, 『한국경찰사 I』, 내무부치안국
- -----, 1973, 『한국경찰사 II』, 내무부치안국
- -----, 1985, 『한국경찰사 III』, 내무부치안국
- 해양경찰대, 1984, 『해양경찰대 30년사』, 해양경찰대
- 허남오, 2003,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 警察廳長官官房(編), 1995, 『警察法解説(新版)』, 東京:東京法令出版.
- -----, 1995, 『主要諸外國の警察制度』, 東京:立花書房.
- 大律英男, 1958, 警察行政, 良書補給會
- 渡邊忠威, 1978, 日本警察史點描, 立花書房
- 河上和雄 外, 1996, 日本の警察(第1卷 警察總論, 立花書房
- Brudney, J. L. and R. E. England, 1986, Toward a Definition of the Coproduction Concep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1).
- Common, 1992. R., N. Flynn and E. Mellon., *Managing Public*

- Services*, London: Butterworth,
- Earle, Howard H., 1987, *Police Community Rel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Epstein, P. D., 1992,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in Holzer, M.(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Y.: Dekker.
  - Farnham, D. and S. Horton, 1992, *Managing People in the public Services*, London: McMillan.
  - Roberg, Roy R. and Jack Kuykendall, 1997, *Police Management 2nd ed.* Los Angeles California: Roxbury Publishing Company.
  - Slater, Harold R., and Martin Reiser, 1998,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Police Recruitment" ,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16, No. 3.
  - Schneider, M. and M. Mintrom, *Public Entrepreneurs*, Princeton: Princeton Univ.Press. 1995.
  - Smith, Bruce, 1960, *Poli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per & Brothers.
  - Swanson, Charles R., Leonard Territo and Robert W. Taylor, 1984, *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William, Bopp, 1980, *Police Personnel Administra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 Wilson, O. W., William F. Walsh, James J. Fyfe, Jack R. Greene, and Roy Clinton McLaren, 1997,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http://www.police.go.kr>
  - <http://www.dgpolice.go.kr>

【국문초록】

부산경찰의 역사는 국립경찰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되어, 1946년 부산경찰서가 제15구경찰서(군정실시)로 개칭되면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7관구 경찰청이 경상남도 경찰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에는 경상남도 경찰국으로부터 부산시 경찰국으로 분리 신설되었다. 이후 변화를 거듭하면서 1991년 8월 1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이 개칭되었고, 1995년에는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우리 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해 본다. 즉, 중앙의 국가경찰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경찰로서 부산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국가경찰체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해 본다. 경무부 시대의 부산경찰, 내무부 치안국 시대의 부산경찰,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활동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그리고 임시수도기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부산 경찰체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바, 이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이 임시수도로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찰의 체제와 활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당시 경찰활동을 경무분야, 방법분야, 수사·형사분야, 경비분야, 정보분야, 보안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면서, 각 분야별 경찰활동을 평가해 본다.

임시수도기 부산경찰활동은 한국전쟁하에서 후방을 교란하는 불순분자의 척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질서유지 그리고 전시체제하에서 경찰의 전투지원 등에 치중된 경찰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한국전쟁, 임시수도, 경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Abstract】

## The study on The Activity of Busan province police in the period of Busan temporary capital

Choi, Jong-sool

In 1945 October 21s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Police Department in every province.

The after that, Korean National Police developed in Burea of National Securiy, The National Security Headquarter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nt.

In 1948 November 4th, Korean police established the Bureau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e Minister of the Internal Affair (police administration, security, economy, inspection service, criminal investigation supervision, identification, communication, firefighting, and female officers).

In 1974 December 24th Korean police upgraded Commissioner General of the Headquarter of National Security into the status of privileged government position and elevated the head of department into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 Due to the new Government Organization Act.

Busan police developed in The Gyeongsangnam-do Police Bureau, The Pusan Police Bureau and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went.

This Research studied on The Activity of Busan province police in the period of Busan temporary capital. From 1950 to 1953, Pusan police was time of war police system at that time of

Korean war. Busan police accomplished the function which supports a Korean war. At that time, Pusan police activity divides with the investigation,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etc. We analyzes Pusan police action and evaluates a result.

Key words : Korea War, Temporary capital,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Burea of National Securiy, The National Security Headquarters, The National Police Agency,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